마 6:30~34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8월 30일 화란한인교회

1.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그러나 그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를 더 많이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입니다.

2. 번역이 조금 다르지만, 이런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크게 안심시킬 것입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은 시시 때때로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풀처럼 입히시겠는가?”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은혜가, 너희에게도 주어질 이유는 무엇인가?”

3. 성도들의 생각은, 들풀과 백합화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데까지는 쉽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냐?”라고 묻는 순간, 낯빛이 변하지요. 100%라고 확신하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짝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백합화보다는 낫겠지?”, “내가 들풀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 것이겠지?”

4.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정말 견고하게 있는가?

5.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들이지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약이란 것으로 단단히 묶여 있지요. 여기서 그 관계의 묶음이 단단하면 단단할 수록, 성도로서의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왜냐하면, 우리를 붙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입는 것도 그의 것입니다. 천지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도 다 그의 것이지요. 그와 부자관계로 묶인 우리가, 우리에게 결핍한 것 때문에 아우성을 친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붙들어 매고 계시는 그 관계를 의심하는 불신자임이 분명한 것이지요.

7.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화를 더 크게 입히시는 분이 나를 붙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의 아들인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한다? 그런 자는, 앞서 말한 그 숨은 질문, 곧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즉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는 자인 것입니다.

8.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혈통이나 국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불리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제외된 자들이지요. 반대로 이방인이 아닌 성도란,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기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9.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 관계라도 맺어 보려는 자들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 연줄을 통해 어떤 혜택이라도 보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이란,

들풀의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아닌, 그 관계가 가져다 주는 이득에 더 관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10. 다시 3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염려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 염려하는 자가 우리라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와서 거듭난 성도들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하고,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1.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먹거리와 마실거리 그리고 입을거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걸 구하느라고 기도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기복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12. 그래서 첫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성도라면, 둘째, 성도는 그 염려 대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성도가 다른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께서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과의 관계보다 더 깊이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거듭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13.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들판의 들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풍성한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14. 이제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되돌아 보건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얻는 "비법"으로 자리해 왔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에게서 마저, 먹을 것과 마실 것, 또 입을 것을 얻는 방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다.

15.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씌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예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조건을 건 것처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16.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번역가의 생각이 자연스레 스며든 것입니다. 무슨 생각? 그리하면 이리 하시겠다는 생각!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의"라는 미끼를 던져 놓으신 것처럼 만든 것입니다.

17.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조건대로 이행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쉽게 얻을 것처럼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바꾸는 만능 치트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구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지요.

18. 영어 번역으로 이 구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여기에는, "그리하면"이란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고"라는

연결사만 있을 뿐이지요.

19. 그러니까, 번역하기 전부터 이 구절은, “모든 것”을 얻는 비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대신,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따로 따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지요.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그리고(카이)”라는 말이 연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자면, “**너희는 구하는 자이고, 나는 더하는 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별인 셈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께서, 우리가 무얼 구하는지 살펴보고, 감안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너희는, 찾는 자여야 하겠고, 나는, 주는 자여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1. 누가복음 펼치셔서 탕자비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 스스로 마음에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리고 19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22. 정작 이렇게 결심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는 그 각본대로 말하지 못하지요. 21절,”**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앞은 똑같았는데, 뒷부분은 더 큰 진심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23. 이 탕자 이야기를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대입해 본다면, 지금 그는, 아버지 앞에 돌아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염열매로 배를 채우던 그였지요.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내 뱉은 첫마디는, “아버지”였습니다.

24. 탕자는 지금 그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과 공로 없음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 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구하는 자로 나타나지요.

25. 이때, 그 아버지는 어떤 자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그에게 거저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26.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추구하는 내용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먹거리와 마실거리, 입을 것입니까? 그것을 얻기 위한 염려가 우리의 기도입니까? 혹, 그것을 더 많이 얻어 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털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7. 이제 마지막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했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이, 오늘까지 먹을 것을 걱정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테니?

28.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 대신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내일! 곧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주님께서, 내일 하실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민은, 그 염려 대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것으로만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